

## 2016년 3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6.3.25(금) 14:30~15:30

### ■ 주요 회의 내용

#### ▲ 보도의 심층성·신뢰성·객관성 제고하고 균형있게 보도해야

- 9시 뉴스는 매시간 뉴스를 전달하는 연합뉴스 특성상 9시에는 좀 더 심층적인 리뷰가 뉴스 중요도에 따라 보강된다면 종합뉴스의 면모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임(박정숙 위원)
- 21일 여성 직장인 72% “결혼이 직장생활 방해 보도에서 결혼이 직장생활을 방해한다는 표현은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가치를 경시한 듯 한 느낌임. 직종, 연령, 혼인여부 등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여성 직장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옳바르지 않음.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는 조사결과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도소재로 적절치 않다고 보임(박동민 위원)
- 한우 관련 내용에서는 한우가 수입산에 비해 맛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없어 아쉬웠음(이태식 위원장)
- 대담토론 프로그램에서 어느 한편의 방향으로 토론이 몰려가는 경향이 있음. 양쪽 방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토론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함(이태식 위원장)
- 12일 토요일 밤 가족친족살해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데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이 지나치게 많은 양이 보도돼 시청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졌음(이태식 위원장)
- 알파고 관련 보도는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기계가 사람을 이기겠느냐는 내용 일색이었다가 두 번 지고 나니 반대측면에서 보도해 균형을 이뤘지만 심층보도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해야함(김용직 위원)

#### ▲ 화면구성, 자막 및 부적합 표현 개선필요

- 사건사고 보도시 나오는 자료 화면은 주로 검찰청, 경찰서 등임. 사건사고 보도마다 같은 관공서의 건물 사진을 반복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해 봐야함(이태식 위원장)
- 대담프로그램에서 메인은 대담자들의 화면임. 대담자들의 화면이 작아지면서 오래된 과거 자료 화면들이 지나치게 반복해서 나와 지겨울 수 있고 혼란스러웠음(이태식 위원장)

- 17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정부의 지능정보기술(연) 설립, 향후 5년간 1조원 투입, 민관협력 전략, 슈퍼컴 및 뇌과학 등 기초연구 투자 등의 계획을 심도있게 보도했음. 다만, 이 뉴스에 이어 다음 뉴스 사이에 아무런 설명없이 갑작스럽게 '한국바둑의 계보를 잇다' 영상물을 추가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한 편집이었다고 사료됨(김상선 위원)
- 연합뉴스TV 가 뉴스 영상 처리에서 지나치게 화면 및 음성 변조를 많이 사용하는 느낌을 받았음. 이 또한 한국 방송의 보편적, 고질적 문제이지만, 그래도 원칙이 분명해야하고, 가능한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게시청자에 대한 예의라 생각함(이재경 위원)
- 27일 오후 5시경 보도내용 중 앵커는 체육단체 통합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 화면 하단에는 SK-CJ헬로비전 합병 자막이 뜨는 미스 매치가 일어난 경우가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임(신현택 부위원장)
- 24일 오전 4시 8분에 내일 오전 9시 모 정당의 공관위가 열린다는 자막이 속보 형식으로 나왔는데 내일 오전이 아니라 오늘 오전이 맞는 표현 아닐까 함(주철환 위원)
- 하단의 뉴스자막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는데 속도를 약간 더 스피디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음(주철환 위원)
- 13일 바둑관련 보도에서 아쉬운 점은 자막에서 12살에 입단을 '12상 입단'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 발견되었음(이태식 위원장)
- 속보에서 메인뉴스와 무관한 속보가 붉은 자막으로 주의를 지나치게 끌도록 나와 시청에 불편했음(이태식 위원장)
- 연합뉴스TV의 빠르고 빈도수가 잦은 뉴스 특보는 타 방송사에 비하여 강점이자 연합뉴스 TV만의 특징이라고 생각됨. 다만, 뉴스특보 큰 글씨 자막으로 인하여 현재 진행 중인 뉴스 자막이 가려지면서 뉴스특보를 반기면서도 동시에 가려지는 뉴스자막으로 인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음(김상선 위원)
- 15일 9시경 밤뉴스에서 대통령 대구에 이어 부산을 방문하는 광폭행보를 했다는 제목에서 광폭행보라는 표현이 방송용어로 적합한지 의문임. 광폭행보는 고어떤 행보를 광폭하다고 하는 것인지 의도 등을 알 수가 없음(이태식 위원장)
- 보통사람이 알아듣기 어려운 옥새반란, 옥새소동이라는 표현은 일반 시청자가 알아듣기 어려우므로 '도장' 등으로 표현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 23일 법률용어관련 자막이 가처분 인용 이라는 말이 뜻은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가처분을 수용한 것인지 받아 들였다는 말인지 궁금했음(이태식 위원장)
- 무책임의 극치라는 표현도 회심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표현도 각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수적인 해설이 필요함. 기자리포터가 화해술자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자리가 화해술자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음(이태식 위원장)
- 연합뉴스TV는 대부분 방송에서 김정은을 언급할 때 직함을 생략하고 있으나 가

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더러 있음. 최근 북한이 상식 이하의 무모한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의 공식 언급에서도 김정은의 직함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김정은으로 호칭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박동민 위원)

#### ▲ 앵커, 리포트 및 현장연결 개선 필요

- 7일 아침뉴스에서 남녀 앵커 중에 남자 앵커의 머리모양이 세침형으로 멋을 지나치게 부린 것이 아닌가 함. 여자 앵커에 비해서 안정감과 무게감이 다소 떨어져 보임(이태식 위원장)
- 연합뉴스TV의 중요한 책임성이 국어의 순화라고 생각함. 우리말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바른말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리포트 시 표준말을 사용해야하고 발음을 또렷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억양에서 많은 아쉬움이 느껴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국어 전문가 등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 리포트를 반영 했으면 함(이태식 위원장)
- 9일 오후 9시 15분 뉴스에서 남자아나운서가 음주운전 관련법에 대한 설명에서 지나치게 말을 더듬었음. 이런 일은 드문 경우인데, 아마도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듣기에 거북했음(정현주 위원)
- 공휴일 심야시간대 등 시청 취약시간에 앵커 배치 및 의상, 보도 내용 등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신현택 부위원장)
-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시청자평가원의 원고를 읽는 듯 한 모습은 자연스럽지 않았음(정현주 위원)
- 시청자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뉴스현장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 좋겠음. 23일 저녁은 유승민 의원의 무수속출마 기자회견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정작 그 시간에는 현장을 연결하지 않고 몇 분 후에 뉴스에서 다루었음. 반면 타사에서는 바로 현장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기자회견을 중계하는 기민함을 보여주었음(주철환 위원)

#### ▲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 기획의견

-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를 시청자들의 시청편의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말에는 수화방송을 보기어려움 주말에도 수화방송을 늘렸으면 함. 더 많은 감동적이고 밝은 소재의 발굴이 필요함 타사에서는 좋은 뉴스라는 이름으로 편성하고 있음(김용직 위원)
- '고성국의 담담타타'는 시의성이 강조되는 대담인데 이튿날 새벽에 전날 방송분을 재방송하는 편성전략은 재고가 필요해보임. 유승민 의원이 23일 밤에 이미 탈당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24일 새벽 재방송에서는 탈당 전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방송됐음(주철환 위원)
- 현재 진행하는 선거보도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방송이 너무 공급자, 정당 위주

의 보도를 한다고 생각함. 민주주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특히 선거 시, 시민을 중심에 두고 보도를 하면 어떨까 함. 또한 후보들에 대한 경마보도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생각하는 후보, 선거의제 등을 조사하고 보도해야 참여를 전제하는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함(이재경 위원)

- 9시 뉴스에서 전문가인터뷰나 기자브리핑이 병행된다면 뉴스리뷰라는 이름에 걸맞은 뉴스쇼가 되지 않을까 함. 끝부분에 사진을 통한 뉴스의 스틸 화면이 길어지다 보니 지루한 감이 있음(박정숙 위원)

### ▲ 긍정적 평가 및 기타의견

- 여러 가지 참신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기에 좋음. 2월 29일 아침 날씨방송에서 기상캐스터가 추운날씨를 안정감 있게 알려줘서 시청하기 편안했음. 이때 자막에서 '오늘 추워요'라는 표현은 참신하고 좋았음. 대담토론에서 여성앵커의 진행과 질문내용도 돋보였음. 참석했던 대담자의 대국설명과 이세돌 관련 설명을 상당히 수궁이 가도록 설명해주어 유익했음. 21일 음주에 관한 내용에서 술은 암에 안 좋으므로 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술과 암 중심의 내용에서 내용에 부합하는 화면구성이 적절했음(이태식 위원장)
- 15일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은 승부를 떠나 바둑에 대한 관심과 인기부 상은 물론 미래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AI)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음. 바둑경기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인공지능의 현황과 미래를 균형있게 분석 보도함 점이 돋보였음. 이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부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김상선 위원)
- 15일 오후 9시 20분 뉴스 '세기의 바둑대결' 마무리 뉴스의 제목을 "여성들의 관심증가의 계기"가 되었다. 로 잡아서 바둑의 장점, 엄청난 관심, 어렵다는 이미지의 탈피의 중요성 등 종합적인 멘트가 인상적이었음. 특히 두 초대 연사들의 평, 차분하고 이해하기 쉬웠음(정현주 위원)
- 23일 오후 8시 40분 경 뉴스 뒤 짧은 영상으로 치타 5마리에게 젓을 주는 '보모개' 인상적이었음. 정치관련 뉴스의 짜증을 풀어주고 웃음을 띠게 하는 영상이었는데 연합뉴스TV가 뉴스의 연속으로 딱딱한 감이 있지만, 이런 소프트한 영상을 더 자주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음(정현주 위원)
- 9시 뉴스는 하루의 저녁뉴스로서 종편을 주로 시청하는 대상층들에겐 하루를 정리하는 종합 뉴스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부분별로 뉴스를 배정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는 뉴스전달은 성공적이고 두 앵커에 대한 평가도 좋아 보임. 김승재앵커의 목소리가 안정되고 정확한 발음으로 오버하지 않는 표현이 뉴스전달력이 뛰어나며, 연합뉴스의 특징인 치우치지 않은 신뢰감을 주며, 김난영 앵커는 단정한 용모와 매력적이며 감성적

뉴스전달시도 호소력이 있음(박정숙 위원)

- 채널23이 특정지역에서는 Mnet이 방송되고 있음. 연합뉴스TV가 채널 25로 방송되는 지역도 있음을 고려해 주기 바람(주철환 위원)

- (끝).